

해남반도 마한산성의 재인식*

양시은**

-
- I. 머리말
 - II. 해남반도의 고대 산성 현황
 - III. 해남반도 마한산성에 대한 재인식
 - IV. 맺음말
-

【국문초록】

본 논문은 해남반도 마한산성의 현황을 고고학적으로 검토해본 것이다.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우선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남지역의 고대 산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.

그 결과 해남지역에서는 마한 시기의 성곽이라고 할 만한 유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. 마한 초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옥녀봉토성이 거론되고 있으나, 현지 조사에서도 토성이라고 할 만한 분명한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다. 토성벽의 인위적인 조성 흔적이 발굴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,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마한의 토성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.

한편, 영남지역에서는 4세기 이후에나 토성이 조영되기 시작하였으

* 해당 논문은 해남군과 백제학회 및 (재)대한문화재연구원이 2018년 7월 12일에 개최한 『해남반도 마한 고대사회 재조명』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.

**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